



08-11 (통권 189호)  
2008.03.21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미 정책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
- 원/달러 환율 급등

## 경영 노트

- 최고전략담당자(CSO) 발탁 노하우 베스트 5

## 사회 트렌드

- 식스포켓 세대
- 국내 수자원, '水質 8위, 水量 130위'

## 저널 브리프

- 체질 개선 중인 신흥경제

## 洗心錄

- 스위스의 5가지 지혜

## □ 美 정책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

- 美 연방제도이사회(FRB)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 및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 18일 또다시 정책금리를 0.75%p 인하하는 조치를 취함
  - 이번 FRB의 금리인하 조치로 연방기금금리는 2.25%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지난 6개월간 6차례에 걸쳐 총 2.25%p 인하한 것임
  - FRB는 연방기금금리 인하와 더불어 재할인율 인하 조치도 함께 시행하여, 재할인율은 3.75%까지 하락하였음
- 한편, 투자은행들의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리인하 조치와 함께 기간입찰대출, 증권담보기간대출, 프라이머리 딜러대출 등 유동성 대책이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음

## □ 원/달러 환율 급등

- 최근 원/달러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의 주식매도분의 역송금 수요,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원화자산 기피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 그 동안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약세기조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3월 20일 현재 1010.0원으로 2월말 대비 71.0원 상승하였음
  - 이러한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원화자산 기피, 국내 경상수지 적자 등의 영향으로 상승
  - 그러나 환율상승은 수출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수출경쟁력 강화시키는 등 유리한 면도 있음
- 시장에서는 원화가 고평가 되었다고 보는 가운데 빠른 환율상승 속도를 우려한 한국 외환당국의 환율 변동성을 줄이려는 조치 등이 원/달러 환율 상승을 제한하는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임

□ CSO(최고전략담당자) 발탁 노하우 베스트 5\*

-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에 따르면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신사업 추진을 주 업무로 하는 CSO(Chief Strategy Officer)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CSO가 주목받는 이유는 사회공헌, 세계화, 그리고 산업 간 복합화 추세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임
  - 야후, AIG 등 글로벌 기업에서 CSO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LG그룹과 레인컴에서 컨설팅 펌 출신의 CSO를 영입함
- HBR은 CSO를 성공적으로 발탁하는 원칙으로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함

<CSO 발탁 노하우 베스트 5>

	Best 노하우	주요 내용
1	기업문화 정통한 내부인 발탁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강력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 사정에 정통해야 함
2	인사·IT분야 강한 팔방미인 영입	특정부서에 치중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여러 부서를 두루 거친 인물이 필요
3	몽상가보다 강력한 실천가 영입	현장경험이 부족한 컨설턴트보다 재무, 아웃소싱, 인수합병 등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적합
4	CEO의 전폭적 지지 제공	전략책임자의 주요 실패원인은 부서 간 협조를 잘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이기에 CSO는 CEO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
5	전문경영인 후계자 구도에 포함	CSO는 CEO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음을 감안 (예: 펄시콜라의 CEO 인드라 누이)

- (시사점) CSO는 CEO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막중한 위치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리·육성되어야 함
  - CSO는 CEO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되, CEO의 관성적인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발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CSO는 선임되기 전 평균 5년 정도를 최고경영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업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이 일반적임

\* 이코노믹리뷰(2007년 11월 14일)를 요약, 정리한 내용임

## □ 식스 포켓 세대

- ‘식스 포켓 세대’(six pocket generation)란 부모, 친조모, 외조모 등 6 명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쓰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개념
  - 고령화·저출산 기조가 일찍 시작된 일본에서 90년대에 만들어진 신조어로서, 연금 받는 세대의 돈이 손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생겨남
  - 우리도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20년 만기를 채워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수령자가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했음
- ‘식스 포켓 세대’가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주머니가 두둑한 노인 세대의 증가와 동시에 저출산의 영향으로 여러 세대의 관심을 듬뿍 받는 아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임
  - 할아버지·할머니들은 손자를 위해 적금 들듯이 어린이 펀드를 들고 있음
  - 어린이 전용 치과·미장원들이 생겨나고, 수입아동복, 베이비워터, 유기농 의류 등 프리미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식스 포켓 세대’의 성장으로 가계의 소비 기준이 어른이 아닌 어린이에게로 옮겨가고 있음
  - '06년 미국의 한 시장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시장규모는 1,150억 달러인데, 이중 아이들 스스로 구매하는 비중이 18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함
  - 미취학 어린이의 15.4%가 온라인을 통해 구매에 나서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나라도 벌써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아이들이 게임기나 의류 등을 구매하고 있음

## □ 국내 수자원, ‘水質 8위, 水量 130위’

- 국내 수자원 수질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지만, 수량 면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도 중앙수자원공사(CWC)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수질 지수는 분석 대상 122개 국 중 8위라고 평가함
  - 반면 수량 면에서는 한국의 1인당 연간 재생가능 수자원량은 1,488㎥ (2005년 기준)로 분석대상 153개 국 중 130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산정
- 유엔은 지난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 물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함

□ 체질 개선 중인 신흥경제\*

- 중국, 러시아, 중동·남미 등 이머징 시장 혹은 이머징 경제의 위상이 최근 1~2년 사이 글로벌 금융시장 및 경제 내에서 급격히 제고되고 있음
- 이머징 경제 부상의 원동력으로는 첫째, 설비투자의 증가를 들 수 있음
  - 원자재 수출 등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과 막대한 외국인 투자자금이 이머징 시장(대표적인 사례로는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유입되면서 각종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
- 둘째로는 이머징 경제의 소비 증대를 들 수 있음
  - (중국의 올림픽 특수) 올림픽이라는 빅 이벤트는 디지털 가전 등 각종 소비재 관련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올림픽 관련 관광 특수 등도 중국 내수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소비 증대) 미국의 경우 자국의 대외불균형 시정을 위한 이머징 국가의 내수 특히 소비 시장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이머징 경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인 소득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내수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머징 통화의 절상) 달러화 약세로 대변되는 이머징 통화의 절상 추세 역시 수출보다 수입시장 확대라는 매개를 통해 내수시장 성장을 촉진
  - (유동성 확대) 공산품 혹은 원자재 수출을 통해 유입된 막대한 유동성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
  - (인구 구조) 대부분 이머징 국가의 인구구조를 보면 소위 주력 소비계층이라 할 수 있는 4~50대 인구가 2010년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이며, 전반적인 임금 및 자산 소득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것임
- (전망) 최근 곡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물가 인상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선진국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으나, 내수 확대를 중심으로 한 경제 체질이 개선되고 있어 여전히 투자 유망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음

\* 이 글은 『매경Economy』 (2008.03.26)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 스위스의 5가지 지혜

한국 사람에게 스위스는 시계와 알프스, 그리고 소녀 하이드의 나라로 인식되어 있다. 1884년 연방제도를 채택하여 현재의 국가체제를 이루고 공업화로 나가기 전까지 스위스는 유럽 최빈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금의 스위스는 세계 관광경쟁력 1위(2007), 국가브랜드 3위(2005), 국가경쟁력 6위(2007)를 차지하고, 국민 1인당 GDP가 5만 달러에 육박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이 되었다. 또한 WTO, IMD 세계경제포럼 등 세계적 인재 집단과 롤렉스, 스위치, 네슬레, 스위스 아미와 같은 수많은 브랜드를 보유한 브랜드 강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천연자원도, 영토도 넓지 않은 스위스가 이처럼 유럽의 강소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스위스의 발전 비결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그 첫 번째는 스위스가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세금징수의 주체인 주나 자치단체들의 소득세 세율결정에 중앙정부의 개입은 적은 편이다. 두 번째는 주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상속세를 없애 세계의 부호들을 불러 모았다. ‘이케아’, ‘하이네켄’, ‘라코스테’ 등의 창업자들과 카레이서 미하엘 슈마허, 팝가수 티나 터너도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다. 셋째는 강한 통화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고물가의 스위스에서는 실제로 노동력도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다. 넷째, 스위스는 프라이빗 बैं크를 활성화했다. 물론 범죄나 독재자의 은닉 목적으로 돈세탁이 이루어진다는 루머가 존재하지만 스위스의 프라이빗 बैं크는 여전히 세계에서 신용의 상징물로 인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는 정치망명자, 과학자, 자유주의자 등 이주해온 유능한 외국인을 적극 고용했다. 시계산업의 주인공만 하더라도 프랑스 루이 14세 때 종교박해를 피해 이주해온 프랑스의 개신교들에 포함되어 있던 기술자 집단인 위그노(Huguenot)들이었다. 결국, 스위스는 척박함 속에서도 제도개혁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을 불러 모았고, 그들이 가진 자산과 기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강소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내는 최상의 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

- 일본 속담 -